

## 장생포 새뜰마을 소방도로 개설로 “같이 지키는 안전한 마을을 만들어갑니다”

장생포 새뜰마을 소방도로 1구간(소로3-336호선) 개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장생포동 옛 동사무소 일원에 길이 203m, 폭 6m로 조성되는 이 도로는 오는 9월께 준공 예정입니다.

소방도로가 개설되면 화재 등 비상상황 시 응급차량 통행이 가능해지고,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도시가스 공급, 재래식 화장실 개선, 주택 신축·개보수 등도 일부 해결될 수 있어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생포 새뜰마을 사업은 '주민 모두가 같이 만드는 가치 있는 삶의 터전'을 목표로 2018년까지 약 84억 원의 예산을 들여 안전확보, 생활·위생인프라 구축, 주택정비지원, 휴먼케어, 주민역량강화 등 총 5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소방도로 1구간 개설 전



소방도로 1구간 개설 후



▲ 소방도로 1구간(소로3-336호선) 개설 공사 현장

## 장생포 새뜰마을, 그간의 이야기

### 집수리 지원 사업

지난 2월, 장생포 새뜰마을 사업구역 내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30년 이상 노후주택과 슬레이트 지붕 주택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집수리 지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원대상가구로 선정되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가구당 최대 700만원까지 수리비가 지원되며, 그 외 가구는 최대 700만원의 지원한도에서 수리 형태에 따라 자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자부담금: 집수리 50%, 슬레이트 지붕개량 30~50%)

대상가구는 오는 7월 집수리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되며, 선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집수리 지원 사업 실태조사 현장

### 장생포 마을 재해예방사업

한백트레이딩 뒤편 급경사지의 암반 붕괴와 낙석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147-1번지 일원의 급경사지에 산사태 위험 해소와 주민들의 생명·재산보호를 위해 시급히 '장생포 마을 재해예방사업'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위험사면을 절취하고, 옹벽과 사면보호공, 산마루측구 등을 설치하며 공사는 오는 9월께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 장생포 마을 재해예방사업 공사 현장

### 소방도로 2구간 개설

장생포우체국 뒤편 소방도로 2구간(소로1-85호선 외 2개 노선) 개설이 본격화 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개설되는 도로는 길이 263m, 폭6m의 도시계획도로로써 그간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쇠퇴가 가속화된 이 일대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방도로 2구간은 지난 4월 25일 보상계획이 공고 된 후 현재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소방도로 2구간 개설 구간





▲ 장생포 새뜰마을 사업 주민협의회 회의

### ☉ 장생포 새뜰마을 사업 주민협의회

매월 세 번째 월요일이면 '장생포 새뜰마을 사업 주민협의회' 회의로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북적입니다.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토대로 만들어진 주민협의회는 새뜰마을 사업 시행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의 공감대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청소와 봉사활동 등 마을을 위해 직접 몸으로 뛰고, 스스로의 역량강화와 교육 참여에도 적극적입니다. 실제 지난 6월 주민협의회 회원 5명이 '2017 마을기업 아카데미'를 수료하며 마을기업 설립의 기반을 다졌고, 이수빈 주민협의회 회장은 남구를 대표하여 수료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리더 '장생포 새뜰마을 사업 주민협의회'의 멋진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 2017년 마을기업 아카데미 수료식

### ☉ 장생포 구.여인숙 아트스테이 조성 사업

45년 된 신진여인숙 건물이 주민과 청년창작자들이 협업하는 복합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구.여인숙 건물의 리모델링 및 아트스테이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장생포 구여인숙 아트스테이 조성사업'은 최근 2018년 마을공방 육성사업 공모에도 선정이 돼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인숙 건물은 원형을 최대한 보존한 상태로 보강·개선 공사가 진행되며, 여인숙 1층은 마을공방, 카페, 독립서점, 아트마켓 등이 들어설 수 있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2층은 청년 창작자 예술활동공간, 레지던시, 게스트하우스로, 옥상은 각종 공연이나 행사, 파티가 가능한 옥상정원으로, 앞마당은 전시와 공연이 가능한 공간으로 꾸며 나갈 예정입니다.



▲ 구.여인숙 아트스테이 청년창작자 라운드 테이블

### ☉ 어르신 가정방문 청소봉사(이전 공공기관 연계협력사업)

'장생포 새뜰마을 사업 주민협의회'와 '한국석유공사' 임직원들이 지난 6월 마을의 어르신 가정 3곳을 방문해 청소와 세탁 등을 도와드렸습니다. 새뜰마을 사업 주민협의회는 평소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이나 마을의 불편한 곳 등을 남구청에 알려오는데, 이번 봉사활동도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계시다는 소식을 전한 계기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한국석유공사는 임직원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각 세대에 쌀, 라면을 전달하는 등 새뜰마을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에 특별한 관심을 쏟았습니다.



▲ 어르신 가정방문 청소봉사

## | 옛날 신문으로 읽는 장생포 이야기

80년 전 6월, 장생포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937년 6월 15일 동아일보 조간 기사를 통해 알아보시다.

### 장생포에 전기가설

다년 먼민들이 갈망하던 문제  
울산 명물 포경지대에

울산의 유명한 포경회사 고래잡이 하는 항구로써 유명한 양항 울산군 장생포의 전기가설 문제는 다년간 먼민 일치 갈망하던 현안 문제로서 내려오던 중 전대흥전기 울산지점에서 착공하여 불원간 실현을 보리라고 하는 바 준공 시에는 방어진항과 아울러 수산 울산의 찬연한 색채를 가하리라고 한다.



▲ 동아일보 기사 원본

장생포에 처음 전기가 들어온 것이 80년 전쯤 인가 봅니다. 기사는 주민들이 다년간 염원하던 전기가설이 실현되어 장생포가 울산의 명물 포경지대로 더욱 빛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실제 그 후 포경 전진기지로 더욱 명성을 높였으며, 그때 만들어진 것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장생포에는 아직 목책 가로등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80년 후에 지금의 장생포는 어떻게 기억될까요?

“다년간 주민들이 염원하던 현안문제를 ‘장생포 새들마을 사업’을 통해 실현했다.” 라는 기억과 기록이 남겨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억과 기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의 막중한 책무인 것 같습니다.

## | 장생포 새들마을 사업은 앞으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 휴먼케어, 주민역량강화 사업 실시

2018년 하반기에는 마을아카이빙(마을촬영 및 기록), 마을영화관, 마을문패 만들기, 시장문화제, 마을클린서비스, 노인건강교실, 어린이 방과후 교실, 사회적경제주체 육성을 통한 일자리지원사업, 주민학교, 주민동아리, 구 여인숙 아트스테이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프로그램 사업이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휴먼케어,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문화, 복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주도의 사업을 실현해 나가며 마을이 스스로 자립하고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 마을전사관



▲ 마을영화관



▲ 시장문화제



▲ 마을문패

## | 장생포 새들마을 소식지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 ▶▶ 장생포 새들마을 소식지, 나도 한마디!

장생포 새들마을 소식지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고자 합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 동네에 전해지는 이야기, 혼자 간직하고 있는 사진 등 이웃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장생포 새들마을 사업과 함께합니다.

남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장생포 새들마을 현장에서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들마을 사업의 내용 및 진행과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주민과 함께하는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재생지원센터”

TEL : 052-226-4867 / FAX : 052-226-4869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15(장생포동)